https://doi.org/10.5392/JKCA.2018.18.07.272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cademic Tutor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곽정숙, 우승희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Jung-Suk Kwag(skks91@hanmail.net), Seung-Hee Woo(sblove5690@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주도적 학습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후 대인관계,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2017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학기동안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후 자기주도 학습력과 개인학습성향은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다소 감소됨을 보였고, 대인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향상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튜터링 프로그램 전, 후 가장 크게 향상된 부분은 대인관계이고, 학년과 참여 동기에서도 가장 향상된 부분은 대인관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가장 크게 변화되고,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대인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대인관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학생들의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학업수준까지 향상시켜 결국에는 중도탈락을 예방하여 대학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이라 판단한다.

■ 중심어 : | 대인관계 | 학업적 자기효능감 | 자기주도학습력 | 튜터링 프로그램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n academic tutor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research question posed in this study was whether an academic tutoring program would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on 214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n academic tutoring program during a semester from September 4 to November 10, 2017.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tutoring program, there was a little decrease i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personal learning orientation, and they made progr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self-efficacy. By gender, there was the greatest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well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tutoring program. By academic year and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they showed the best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well, followed by academic self-efficacy. In other words, it could be said that the parts which the tutoring program brought about the biggest change to and worked best on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self-efficacy could boost not only the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but their academic levels and then eventually prevent them from dropping out. Therefore this program seems to be one of outstanding learning programs that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stable management and qualitativ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 keyword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Academic Self-efficacy | Self- directed Learning Capability | Tutoring Program |

접수일자 : 2018년 05월 23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04일
교신저자 : 우승희, e-mail : sblove5690@hanmail.net

Ⅰ. 서론

현재 대학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감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튜터링, 자율적 스터디 그룹, 학습동아리 등과 같은 소집단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트랜드와 부합하여 튜터링 학습이 부각되고 있다.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국내 일부대학에 도입되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1], 학생들의 참가율과 기대효과가 증대되면서 점차 각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 대학에서는 학교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공 또는 교양과목의 예습과 복습뿐만 아니라 어학 및 각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Howard S. Barrows[2]는 학습 튜터링이란 학생들의 사고하는 과정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였고, 실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학의 연구[3]에서는 "튜터링은 전공 또는 교양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교과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해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형태라고 정의하였다."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역할은 가르치는 입장인 튜터와 배우는 입장의 튜티가 있다. 가르치는 튜터는 전공 또는 교양과목에 대한 복습의 기회와 가르치는 활동을 통한 자신감 성취를 느낄 수가 있고, 학습 도움을 받는 튜티는 예습의 기회와 학습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동기를 향상할 수 있으며 교우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의 연구에서[4]는 개별학습 집단과 튜터링 학습 집단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 튜터링 학습 집단이 개별 학습 집단보다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과 학업성취도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었고, 이 결과는 대학에서의 튜터링 학습을 개발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대학 내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한 연구[5]에서는 튜터의 지식과 태도 수준이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 성과에 영향을 준다며 튜터의 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 경향에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는 튜터와 튜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튜터링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새로운 제도와의 접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후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력, 학업적효능감에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향 후 보다 효과적인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의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링은 튜터(Tutor)가 학습지도를 받고자 하는 동료, 후배에게 해당 교과목을 반복 지도함으로써 튜티(Tutee)의 부진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튜터(Tutor)는 더욱 향상된 실력과 교수법을 익히는 학생 주도적인 협동학습 활동이다. 특히 튜터링은 학습을 매개로 학교 선후배, 동기 간, 사제 간 학문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인한 주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튜터링 프로그램이 2003년 이후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꾸준히 운영되고 학생들의 참여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주요 국내 대학의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의 경우 영어 및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지식을 보완 해 주기 위하여 3-4학년 튜터가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교양 피어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튜터와 해당 교과목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튜티가 매 주 정기적으로 만나 학습하는 방

식의 '독수리 튜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1:1 방식의 '글로벌 튜터링', 동일 전공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학과 단위 튜터링', 새터민 학생들의 대학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 튜터링', 튜터가 직접 제작한 튜터링 동영상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TCC(Tutor Created Contents) 튜터링' 등으로 대상과 내용을 다양하게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전공과목의 보충 및 심화학습을 위한 3-5명 대상의 소그룹 튜터링과 peer instructo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급자 튜터 및 교수에게서 특정 교과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개별적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튜터링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각 대학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다. 학습튜터링은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을 통하여 튜티의 학업능력 향상과 더불어 참여자 간의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효능감 향상 등 다양한 개인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다.

2. 대인관계능력

인간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Erikson(1959)는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일은 중요한 발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명귀(2000)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경험은 각자의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가정, 학교, 사회현장 모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 구조화 되었던 중・고교 시절과는 다르게 생활에 자유로움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에서 상대를 선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업 성과 이외에도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선복근, 김병삼과 정준오(2009)의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튜터링을 실시한 결과 동료 튜터링이 학업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흥미 증진, 선후배간 관계, 리더십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속감을 갖게 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자기주도 학습력과 학업적 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학업적 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인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반하여 캐나다의 심리학자 Albert Bandura가 제시한 개념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자기 효능감 이론은 학습행동이 학습자의 내적 사고과정에 의해 촉발된다는 내재적 동기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1960년대 후반의 인지혁명 이후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발생된 인지적 동기이론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학업적 효능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익숙한 학생

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은 아직 낯설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튜터링을 통한 교수학습법의 다양화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큰 학습자일수록 학습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고, 남들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세우며, 뛰어난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정정애, 2008).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튜터링에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M대학 2017년 2학기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은 전공 교과 또는 어학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 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항 목	분 류	명(N)	백분율(%)
성별	남학생	74	34.6
	여학생	140	65.4
연령	19세이하	96	44.9
	20-22세	75	35.0
	23세이상	43	20.1
학년	1학년	93	43.5
	2학년	65	30.4
	3학년	56	26.2
학과	간호학과	94	43.9
	치위생과	50	23.4
	식품영양과	39	18.2
	기타 학과	31	14.5
참여 동기	자발적	70	32.7
	교수추천	130	60.7
	기타	14	6.5
전 체		214	100.0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능력, 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해당 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학습하는 학생 00명을 대상으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대인관계능력, 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M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은 전공학습 기초 이해 및 지식 증대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학습 협력 문화 형성을 통한 중도 탈락률 감소를 목적으로 실행하였다. 학습 튜터링 유형은 각 학과 2, 3학년 학생으로 해당 교과목 학점이 A^0이상인 자 또는 평균평점 3.5점 이상인 자 1인을 튜터로 선정하였고, 튜티는 해당 교과목 학점이 B학점 이하인 학생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4-5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학습 튜터인 프로그램의 참여하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며 종속변인은 참여저의 대인관계,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다. 변인들 간의 상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이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전·후 변화에 있는가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검사,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사후검사와 결과처리 및 해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튜터링 프로그램이 실시하기 전 2017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여자로 하여금 조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조사할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총 8주 동안 16시간 이상의 시간에 걸쳐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이 진행되었으며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최종 분석 대상자는 사전, 사후 검사에 모두 포함된 214명이었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력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법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대인관계능력 척도, 자기주도학습력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활용되었다. 먼저 대인관계능력 척도는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현진원(1992)의 번안 후 김효순(2005)이 번안 후 김효순(200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7개의 문항 중 사회적응에 대한 17문항을 통하여 대인관계 정도를 측정하였고 모두 5점 척도의 Likert식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력에 대한 척도는 Pajares(1996), 김정숙(2008), Park(2009), 남민우(2010), 엄소연(2010), 박경임(2011) 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정보통신윤리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검증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과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e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계수가 0.725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에 대한 신뢰계수가 0.890,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계수가 0.930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Cronbech's의 알파계수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뢰도 분석

항 목	문항 수	신뢰계수
대인관계능력	17문항	0.725
자기주도학습력	16문항	0.890
학업적 자기 효능감	28문항	0.930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인관계능력, 주도적 학습관계, 개인적 학습성향, 학업적효능감에 대해서는 튜터링 학습 전 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전, 후 비교분석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자의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력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대인관계능력과 학업적 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후 향상됨을 볼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p=0.006)는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학습튜터링프로그램 참여 전 후 비교분석

항목	사전	사후	평균	t값	p값
대인 관계 능력	2.94 ± 0.49	3.07 ± 0.54	0.13 ± 0.72	2.786	0.006**
자기 주도 학습력	3.30 ± 0.71	3.25 ± 0.63	−0.05 ± 0.93	−0.877	0.381
학업적 자기 효능감	2.99 ± 0.65	3.02 ± 0.44	0.03 ± 0.80	0.687	0.493

*p<0.05, **p<0.01, ***p<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전·후 비교 분석

2.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남학생은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전보다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 모두 향상되었고, 여학생은 자기주도 학습력을 제외한 대인관계능력, 학업적 효능감에서 다소 프로그램 수

행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능력은 사전-사후 변화가 가장 뚜렷이 나타났고, 남녀 간의 차이 역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항목	분류	성 별		p값
		남학생	여학생	
사전	대인관계능력	2.93 ± 0.55	2.94 ± 0.45	0.945
	자기주도학습력	3.34 ± 0.73	3.28 ± 0.70	0.612
	학업적효능감	3.03 ± 0.68	2.96 ± 0.64	0.435
사후	대인관계능력	3.19 ± 0.50	3.01 ± 0.55	0.021*
	자기주도학습력	3.36 ± 0.69	3.19 ± 0.59	0.063
	학업적효능감	3.06 ± 0.43	3.01 ± 0.45	0.432

*p<0.05, **p<0.01, ***p<0.001

2.2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

19세 이하 집단에서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후 대인관계와 자기주도 학습력은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2세 집단에서는 대인관계와 학업적 효능감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23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학업적 효능감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항목	분류	연 령 별			p값
		19세 이하	20-22세	23세 이상	
사전	대인관계능력	2.83 ± 0.44	3.00 ± 0.50	3.05 ± 0.52	0.671
	자기주도학습력	3.27 ± 0.67	3.36 ± 0.76	3.28 ± 0.71	0.554
	학업적효능감	3.15 ± 0.51	3.04 ± 0.36	2.94 ± 0.65	0.060
사후	대인관계능력	3.13 ± 0.54	3.12 ± 0.51	2.86 ± 0.53	0.448
	자기주도학습력	3.29 ± 0.59	3.23 ± 0.60	3.19 ± 0.77	0.418
	학업적효능감	2.97 ± 0.44	3.11 ± 0.49	3.02 ± 0.44	0.074

*p<0.05, **p<0.01, ***p<0.001

2.3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1학년은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후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2학년은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이 향상되었으며 3학년은 대인관계능력, 학업적 효능감이 향상되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력은 다른 학년에 비하여 2학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표 6. 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항목	분류	학 년 별			p값
		1학년	2학년	3학년	
사전	대인관계능력	2.92 ± 0.44	2.94 ± 0.43	2.96 ± 0.60	0.872
	자기주도학습력	3.28 ± 0.64	3.32 ± 0.76	3.30 ± 0.77	0.937
	학업적효능감	2.91 ± 0.74	3.14 ± 0.42	2.93 ± 0.70	0.086
사후	대인관계	3.05 ± 0.62	3.19 ± 0.44	2.98 ± 0.49	0.103
	자기주도학습력	3.24 ± 0.62	3.45 ± 0.65	3.02 ± 0.55	0.001**
	학업적효능감	2.97 ± 0.46	3.04 ± 0.37	3.02 ± 0.44	0.228

*p<0.05, **p<0.01, ***p<0.001

2.4 학과에 따른 차이 분석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과는 간호학과,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기타학과로는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간호학과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전・후를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이 프로그램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위생과는 프로그램 전보다 학업적 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는 프로그램 전에 비하여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 효능감 모

두가 향상되었다. 기타학과는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표 7. 학과에 따른 차이분석

항목	분류	학과별				p값
		간호과	치위생과	식품영양학과	기타학과	
사전	대인관계능력	3.00 ± 0.52	3.15 ± 0.49	2.92 ± 0.41	2.85 ± 0.64	0.329
	자기주도학습력	3.36 ± 0.73	3.26 ± 0.59	3.37 ± 0.73	3.11 ± 0.78	0.350
	학업적효능감	3.01 ± 0.52	3.03 ± 0.41	3.06 ± 0.29	3.00 ± 0.41	0.948
사후	대인관계능력	3.03 ± 0.66	3.08 ± 0.49	3.22 ± 0.35	3.03 ± 0.34	0.315
	자기주도학습력	3.15 ± 0.64	3.13 ± 0.51	3.65 ± 0.57	3.23 ± 0.68	0.000 ***
	학업적효능감	2.86 ± 0.80	3.13 ± 0.48	3.12 ± 0.29	2.95 ± 0.68	0.59

*p<0.05, **p<0.01, ***p<0.001

2.5 참여 동기에 따른 차이 분석

자발적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튜터링 프로그램 후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에서 향상됨을 보였고, 교수추천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 역시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에서 향상됨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함을 없었다[표 8].

표 8. 참여동기에 따른 분석화

항목	분류	참여동기별			p값
		자발적	교수추천	기 타	
사전	대인관계능력	2.98 ± 0.46	2.91 ± 0.49	2.91 ± 0.49	0.555
	자기주도학습력	3.26 ± 0.69	3.32 ± 0.72	3.33 ± 0.70	0.843
	학업적효능감	3.01 ± 0.68	2.98 ± 0.60	2.99 ± 0.65	0.844
사후	대인관계능력	3.13 ± 0.50	3.05 ± 0.56	3.04 ± 0.61	0.586
	자기주도학습력	3.38 ± 0.68	3.17 ± 0.59	3.29 ± 0.70	0.073
	학업적효능감	3.04 ± 0.37	3.01 ± 0.48	3.10 ± 0.40	0.844

*p<0.05, **p<0.01, ***p<0.0011

3.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분석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효능감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인관계능력은 자기주도 학습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대인관계가 높으면 자기주도 학습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력은 대인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력이 높아지면 대인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향상됨이 나타났다[표 9].

표 9.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분석

항 목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력	학업적효능감
대인관계능력	1		
자기주도학습력	.564**	1	
학업적효능감	.255**	.369**	1

*p<0.05, **p<0.01, ***p<0.001

4.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8점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튜터와 튜티를 분류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튜터보다 튜티의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프로그램 역할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표 10].

표 10. 튜터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항목	전 체	참여학생		p값
		튜터	튜티	
역할 만족도	3.89 ± 0.98	3.60 ± 0.96	4.13 ± 0.88	0.001**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3.98 ± 0.82	4.07 ± 0.84	3.97 ± 0.73	0.419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3.91 ± 0.84	3.91 ± 0.91	3.96 ± 0.74	0.744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3.73 ± 0.80	3.70 ± 0.85	3.76 ± 0.69	0.664

*p<0.05, **p<0.01, ***p<0.001

V. 고 찰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전, 사-후에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파악하고, 변화가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성취도 향상과 학습지속의향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력, 학업적 효능감이 튜터링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검증(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향 후 튜터링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시키고 활성화를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M대학에서 운영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2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로 여학생(65.4%)으로 구성되었고, 학년으로는 졸업과 취업에 부담이 없는 1학년(43.5%)과 2학년(30.4%)이 대부분 차치하였다. 그리고 참여 동기는 자발적 참여보다 교수의 추천(60.7%)으로 이뤄졌으며, 튜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튜티는 성적이 다소 부진한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튜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습 증진 및 성적 향상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후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력, 개인학습성향, 학업적효능감에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력과 개인학습성향은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다소 감소됨을 보였고, 대인관계와 학업적효능감은 향상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튜터링 프로그램 전, 후 가장 크게 향상된 부분은 대인관계이고, 학년과 참여동기에서도 가장 향상된 부분은 대인관계이고, 그 다음으로는 학업적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가장 크게 변화되고,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대인관계와 학업적효능감이라 말할 수 있는 결과이다.

첫째, 대인관계는 대학 생활의 적응과 학습의 흥미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은 튜터링을 통하여 학습을 증진하여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튜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사회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친목 도모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기[6]는 대학 튜터링 관련 연구에서 참여하는 튜티들은 튜터링 활동의 즐거움과 사회관계에 대한 동기가 높다고 주장하였고, 안수현, 김현철[7]의 연구에서도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좋은 점은 의사소통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선후배간 학문적 유대감 및 소속감 증진이라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복근 외[8]의 연구에서도 튜터링을 실시하였을 때 학업 능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흥미의 증진, 선후배간의 관계 증진, 리더십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황채연[9]의 튜터링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도 튜터링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대인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진실과 이무영[10]은 튜터링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학습몰입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및 내적 학습동기의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튜터링의 효과성을 탐색해 본 연구들은 튜터링이 학습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어 중도탈락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음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최근 대학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개인이 부정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하게 되면 통합은 감소되고 학문 및 사회 체제와 멀어지며

개인의 주변화가 촉진되다가 궁극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Pascarella&Terenzini). 대학생들은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사회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밟아가게 되면 학업지속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응 상태는 중도 탈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부분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학업에 불충실하고 학교, 학과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학업능력이 다소 부족할 때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말하듯이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친목 유대관계에 도움을 주며 학교적응에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Bandura(1977)는 학업적 효능감이란 학습자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감과 신념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자에 있어서 효율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 학업성취도에도 직접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튜터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송윤희와 김성환[11]은 대학 튜터링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이신영[12]의 연구에서도 튜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을 때 교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비하여 이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언급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수업과정에서 학습자가 동료와 소그룹 협력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을 인지하는 관점에서 타인과의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 학습은 지식구성 및 문제해결전략이 내실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학습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서 주입식 교육보다 학습능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학업수준까지 향상시켜 결국에는 중도탈락을 예방하여 대학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이라 판단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설계를 토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튜터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주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며 튜터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체계적인 튜터 훈련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할 것이고, 학습내용 제공자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튜티 또한 튜터링을 통해 동료 학습자, 튜터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모임을 통해 상시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고, 튜터에게 계속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한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 성과가 튜티에게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학습성취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부재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학습성취도 역시 높을 것이다'는 조건하에 주장된 점 역시 제한점을 가진다. 향후, 학습성취도를 비롯하여 튜터에 특성과 관련된 변인, 튜터와 튜티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 성과와 관련 변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튜터링 프로그램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김명귀, *Jung의 심리경향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 Howard S. Barrows, *The Tutorial Process,* 3Ed., Illinoi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2005.

[3] 김민정, *전문대학 튜터링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규명*,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 김수영, *대학 내 튜터링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 김연경, 송혜덕, "대학의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티가 인식한 튜터의 역량수준이 튜터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지, 제15

권, 제5호, pp.229-250, 2015.
[6] 김진실, 이무영, “전문대학 전공수업에서의 학습 공동체 운영 효과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지, 제39권, 제2호, pp.205-226, 2007.
[7] 남민우, *대학생 모바일 러닝 사용의도와 관련요인 구조방정식 모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8] 선복근, 김병삼, 정준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생 주도형 학습공동체(피어 튜터링)활동,” 한국공학교육학회지, 제12권, 제4호, pp.126-128, 2009.
[9] 송윤희, 김성환, "대학 튜터링 프로그램이 수학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H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지, 제16권, 제2호, pp.441-459, 2012.
[10] 안수현, 김현철, "튜터링 프로그램에서의 지도 튜터 운영사례 연구: S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지, 제45권, 제3호, pp.1-24, 2014.
[11] 오선아, “동료 튜터링과 개별학습에 따른 인식론적 신념,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분석,” 한국교육방법학회지, 제26권, 제4호, pp.791-816, 2014.
[12] 이수지, *의과대학의 문제중심학습에서 튜터의 전문분야와 교수경험에 따른 개입 형식과 학습결과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3] 이신영, *일반물리 수업에서 대학생의 개념 이해력과 수리문제 해결력 비교 및 튜터링 프로그램의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 이정기, “대학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역할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이용과 효과,” 학습과학연구지, 제9권, 제1호, pp.49-26, 2015.
[15] 황은영, *엑설런트 튜터링(대학생을 위한 학습가이드),* 학지사, 2008.
[16] 황채연, *튜터링 프로그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저 자 소 개

곽 정 숙(Jung-Suk Kwag) 정회원

- 2003년 2월 : 원광대학교 화학과 (이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치면세마론, 지역사회구강보건

우 승 희(Seung-Hee Woo) 정회원

- 2017년 8월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 치과임상학